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수요조사 연구

A Study on Students' Need for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of Libraries

노 영 희(Younghee Noh)*
김 혜 인(Hyein Kim)**

〈목 차〉

I. 서론	1.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II. 선행연구	2.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III. 연구설계 및 방법론	3. 도서관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1. 연구질문	V. 논의
2. 설문내용 및 설문대상	VI. 결론 및 제언
IV. 분석결과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수요조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을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였다.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능력요소는 진로탐색능력이며, 중점적으로 운영된 자유학기제 유형은 진로탐색활동이다. 수업방식은 주로 체험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자유학기제 동안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진로탐색 영역에서는 현장 체험 활동을, 학생선택 프로그램에서는 요리실습을, 동아리활동에서는 스마트폰 앱 개발, 예술영역에서는 디자인 활동을, 체육영역에서는 배드민턴을, 정보활용능력에서는 아이패드 사용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도서관 프로그램 중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해야 할 것이며, 도서관이 제공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키워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학생수요, 직업체험프로그램

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seventh and the eighth graders' percep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offered by libraries by developing a survey questionnaire on students' needs for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of Libraries. The skill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want to improve in Free Learning Semesters are career exploration skills, and the type of Free Learning Semester that is most intensively implemented is career exploration activities. Programs are often offered in the form of experiential classes. Regarding the activities that the students want to participate during Free Learning Semester, the most preferred activities included field experience activity in the career exploration domain, cooking class in the student choice program, smartphone app development in club activities, design activity in the art domain, the badminton in the physical education domain, and using iPad in the information use skills. In addition, among the library programs in coordination with Free Learning Semester, the students liked the occupational experience program most. Future studies need to includ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based on students' opinions, and investigate their satisfaction with the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offered by libraries.

Keywords: Free learning semester, Programs of libraries, Students' need, Occupational experience program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hdah3258@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6년 8월 20일 •최초심사: 2016년 8월 30일 •게재확정: 2016년 9월 21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187-211, 2016. [http://dx.doi.org/10.16981/kliiss.47.201609.187]

I. 서론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위해 한 학기동안 탄력성 있고 유동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는 학생 각자가 성장 후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필요한 정보와 경로를 알도록 돕는 진로활동 위주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교육부 2013).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공교육 체제를 완성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높은 학업성취 수준에 기여하였지만, 주입식, 암기식,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 및 행복지수는 낮은 것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읽기 능력과 수학은 전 세계 1위이고, 과학은 3위인 반면 학업 흥미도는 전 세계 평균의 30%에도 못 미치고 행복지수도 114%인 스페인에 비해 우리나라 학생은 6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류정섭 2013). 특히 중학생들이 장래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진로나 자신에 대한 탐색 및 고민의 시간과 계기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한국고용정보원 2008). 따라서 교육의 패러다임을 개개인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 창의력과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 계기 제공으로 잡고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자유학기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유학기제를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 즉 교과과정과 연계하는 방안,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김은정 2013) 등이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진로 체험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 방안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성은모, 정효정 2013) 등이 수행되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자유학기제를 적용하고 있는 학교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김미진 등(2014)은 2013년 1학년 2학기에 전국 42개의 연구학교들이 자유학기제를 시범 적용을 한 후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도서관에서도 자유학기제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청소년사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정독도서관에서는 자유학기제 맞춤형 프로그램과 청소년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평도서관에서는 자유학기제 적성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당진도서관의 자유학기제 지원 직업 체험 프로그램, 진해도서관의 동부도서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성남도서관의 도서관에서 내 꿈 찾기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많은 도서관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의무화된 자유학기제에 참여할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도서관에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행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특히 도서관에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으며, 그 성과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권역별로 약 40개의 학교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이 자유학기제 시행과 연계하여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자유학기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및 연구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의 연구는 주로 자유학기제의 개념, 해외 사례의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등이었으며, 이후 자유학기제 시범운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향 도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각 분야에서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관련 현장에서 대응하는 방안과 대학이나 학과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창기 연구로 자유학기제를 둘러싼 많은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행복하면서도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최상덕, 신철균, 박균열 2013). 이지연(2013)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도록 중학교 과정 한 학기에서 탐색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가 진로교육 중심으로 도입·운영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밝히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자유학기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진척된 자유학기제 관련 정책 발전 과정과 쟁점 이슈를 수집·분석하였으며 해외 유사사례인 아일랜드, 영국, 덴마크 정책을 종합하면서 한국만이 갖는 자유학기제 특성과 진로교육과의 연계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로 이지연(2013)은 학생들의 인성개발, 창의적 교수학습 실천, 그리고 진로탐색의 각기 다른 3영역으로 분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로탐색이 자유학기제 구심체로서 운영될 경우 인성개발과 창의적 교수학습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진숙(2013)은 아일랜드 Transition Year(TY) 교육과정에 대한 탐구

연구를 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아일랜드 TY 교육과정의 특징을 분석하고, TY 교육과정의 특성에서 도출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지연(2014)은 「단위학교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서비스를 위한 체계적 접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는 정부가 강조하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 시행과 더불어 진로교육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은영 등(2014)도 가정교과가 자유학기제에 적극 대처할 시사점을 찾고자 첫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시범운영 보고서 42부를 분석하여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주요 현황과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주요 프로그램 운영 실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활동 중 가정교과와 관련된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의 운영 형태와 실행사례를 분석하였다.

김중운과 이태곤(2014)은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부산 소재 전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50명을 추천받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25명씩 배치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8회기의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았다. 모든 연구가 끝난 후 통제집단에 대해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신철균(2104)은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서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고 현장의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자유학기제 교육 활동 운영 실태, 자유학기제의 지원 환경, 운영 결과, 그리고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연구학교)와 비운영학교(희망·일반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를 분석하였다. 임지연 등(2014)도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지역연계 청소년활동의 실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원방안의 중요도와 현재 실천도를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는 정책방안으로 문제현상, 문제원인, 대안마련을 제시하였으며, 단계에서 중장기 단계별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자유학기제 도입과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하거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에 도서관계나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이를 대비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시점에서 도서관은 가장 융통성 있고 조직적으로 자유학기제 대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수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설계 및 방법론

1.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수혜대상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RQ 1: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능력요소는 무엇인가?
- RQ 2: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RQ 3: 중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동안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RQ 4: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높이 선호하고 있는가?

본 연구질문 외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생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성별, 학년, 권역별 인식차이도 조사하였으나 연구질문에서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부분에서 밝히고자 한다.

2. 설문내용 및 설문대상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해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논문 및 각종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설문지 내용을 개발하였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은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자유학기제 시범교육(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가정교과 관련 운영 실태 분석(이은영 외 2014) 등 관련 연구에서 수행된 설문을 포함하여 사례조사 등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항목은 관련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도서관에서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하고, 신문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도서관 계획 등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발굴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는 향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크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참여하고 싶은 활동,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에 대한 요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3호)

구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7개의 문항이 개발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지의 내용과 문항 구성

항목	내용
인구학적 특징	성별, 학년, 거주지
자유학기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자유학기제 활동에서 중점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유형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권장하는 기본 교과목 수업방식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
	자유학기제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자유학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유학기제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요소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선호하는 기본 교과목 수업방식
	자유학기제 활동 유형 중 선호하는 유형
자유학기제 만족도	자유학기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자유학기제 경험여부
	자유학기제 경험에 대한 만족도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자유학기제 활동
자유학기제 연계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학교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진행된 교과목의 수업방식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중 도서관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받은 경험
	도서관에서 제공가능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선호항목
	도서관에서 제공가능한 정보활용영역 프로그램의 선호항목
	정보활용영역(미래 경쟁력을 위한 기초역량)에서 참여하고 싶은 활동

위의 설문문항을 기반으로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위해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학교로부터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목록을 확보하였으며, 그 중 설문에 참여 하겠다고 사전 전화에 응답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40개 학교도서관 을 대상으로 20부씩 800부를 배포하여 398부를 회수 하였으며 회수율은 49.75%이다.

IV. 분석결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징을 살펴보면, 응답자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며, 총 398명의 응답자 중 남자는 45.48%, 여자는 54.52%이다. 학년분포는 1학년 24.62%, 2학년 75.38%이며, 거주지 분포는 수도권이 61.31%, 영남권 22.36%, 중부권 11.56%, 호남권 4.7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N	%
성별	남	181	45.48
	여	217	54.52
학년	1학년	98	24.62
	2학년	300	75.38
거주지	수도권	244	61.31
	중부권(충청, 강원)	46	11.56
	영남권	89	22.36
	호남권(제주 포함)	19	4.77

1.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가. 자유학기제 운영 필요도

자유학기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예가 77.14%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유학기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인식차이 비교에서는 유의한 인식차이로 1학년이 2학년보다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었고, 자유학기제 경험에 따른 유의한 인식차이는 있었으며, 경험이 없는 학생이 더 그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자유학기제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경험있는 학생이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경험있는 학생들의 필요성 인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표 3〉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필요정도

항목	N	%	성별				학년				거주지				자유학기제 경험							
			구분	N	%	t	p	구분	N	%	t	p	구분	N	%	Chi	p	구분	N	%	t	p
예	307	77.14	남	141	77.9	0.110	0.740	1학년	91	92.9	18.220	0.000	수도	192	78.7	2.080	0.556	유	229	74.6	4.923	0.027
			여	166	76.5			2학년	216	72.0			중부	33	71.7			무	78	85.7		
아니오	91	22.86	남	40	22.1	0.110	0.740	1학년	7	7.1	18.220	0.000	영남	66	74.2	2.080	0.556	유	78	25.4	4.923	0.027
			여	51	23.5			2학년	84	28.0			호남	16	84.2			무	13	14.3		
합계	398	100.00										수도	52	21.3								
												중부	13	28.3								
												영남	23	25.8								
												호남	3	15.8								

나. 자유학기제를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능력요소에 대한 인식

자유학기제를 통해 향상시키고자 하는 능력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로탐색능력이 평균 3.960으로 가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개발능력 3.95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3.719, 문제해결능력 3.60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거주지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었고, 학년에 따른 인식차이 비교에서만 자기개발능력의 p값이 0.012, 문제해결능력 0.037,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0.002로 유의한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표 4〉 자유학기제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요소

항목	M	Std	성별				학년				거주지			
			구분	M	t	p	구분	M	t	p	구분	M	Chi	p
진로탐색능력	3.960	0.946	남	3.956	0.099	0.999	1학년	4.143	6.471	0.167	수도	3.926	15.382	0.221
			여	3.963			2학년	3.900			중부	3.957		
자기개발능력	3.952	0.942	남	4.017	3.859	0.425	1학년	4.204	12.902	0.012	영남	4.112	10.924	0.535
											호남	3.684		
										수도	3.902			
										중부	3.826			

문제해결능력	3.603	0.972	여	3.899	9.355	0.053	2학년	3.870	10.231	0.037	영남	4.135	8.848	0.716
			남	3.663			1학년	3.847			호남	4.053		
			여	3.553			2학년	3.523			수도	3.582		
											중부	3.435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3.719	1.070	남	3.768	6.385	0.172	1학년	4.061	16.939	0.002	영남	3.742	6.169	0.907
			여	3.677			2학년	3.607			호남	3.632		
											수도	3.689		
											중부	3.652		
M	3.809	0.983									영남	3.820		
											호남	3.789		

자유학기제 경험에 따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역량 및 능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항목이 유의한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었지만, 자유학기제 무경험자가 네 개의 능력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비교에서는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이 3.655, 경험이 없는 학생이 3.934로 나타났으며, 자유학기제 경험이 없는 학생의 동의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 경험에 따른 자유학기제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요소

항목	자유학기제 경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구분	M	t	p	구분	M	t	p
진로탐색능력	유	3.919	4.292	0.368	유	3.994	2.563	0.633
	무	4.099			무	3.935		
자기개발능력	유	3.893	8.530	0.074	유	3.958	3.096	0.542
	무	4.154			무	3.948		
문제해결능력	유	3.541	7.225	0.124	유	3.617	0.958	0.916
	무	3.813			무	3.59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유	3.655	11.947	0.018	유	3.776	3.536	0.472
	무	3.934			무	3.684		

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선호하는 교과목 수업방식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선호하는 교과목 수업방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체험중심 수업을 평균 4.349로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학습 3.837, 협동학습 3.71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의식 수업이 3.103으로 비교적 선호하지 않는 수업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거주지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었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 비교에서는 체험중심 수업방식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녀 모두 높은 동의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토론식 수업방식에서는 가장 큰 차이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선호하는 교과목 수업방식

항목	M	Std	성별				학년				거주지			
			구분	M	t	p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강의식 수업	3.103	1.125	남	3.254	10.989	0.027	1학년	3.235	3.585	0.465	수도	3.107	9.729	0.640
				여				2.977			2학년	3.060		
											영남	3.067		
											호남	3.211		

토론식 수업	3.317	1.160	남	3.569	23.325	0.000	1학년	3.500	6.126	0.190	수도	3.344	16.190	0.183
			여	3.106			2학년	3.257			중부	3.217		
체험중심 수업	4.349	0.870	남	4.431	7.016	0.135	1학년	4.541	7.878	0.096	영남	3.393	11.311	0.502
			여	4.281			2학년	4.287			호남	2.842		
프로젝트 학습	3.837	1.044	남	4.033	18.923	0.001	1학년	4.000	3.578	0.466	수도	4.266	13.815	0.313
			여	3.673			2학년	3.783			중부	4.348		
협동학습	3.716	1.094	남	3.801	10.337	0.035	1학년	3.827	2.282	0.684	영남	4.584	10.184	0.600
			여	3.645			2학년	3.680			호남	4.316		
M	3.664	1.059									수도	3.783		
											중부	3.848		
											영남	3.989		
											호남	3.789		
											수도	3.676		
											중부	3.696		
											영남	3.843		
											호남	3.684		

자유학기제 경험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수업 방식 선호차이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험에 따른 선호하는 자유학기제 기본 교과목 수업방식

항목	자유학기제 경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구분	M	t	p	구분	M	t	p
강의식 수업	유	3.078	3.207	0.524	유	3.240	5.618	0.230
	무	3.187			무	3.004		
토론식 수업	유	3.296	4.452	0.348	유	3.311	5.742	0.219
	무	3.385			무	3.320		
체험중심 수업	유	4.332	0.729	0.948	유	4.407	5.447	0.244
	무	4.407			무	4.307		
프로젝트 학습	유	3.811	2.234	0.693	유	3.916	4.894	0.298
	무	3.923			무	3.779		
협동학습	유	3.707	2.315	0.678	유	3.778	7.443	0.114
	무	3.747			무	3.671		

라. 선호하는 자유학기제 활동 유형

선호하는 자유학기제 활동 유형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동아리활동이 평균 4.116으로 가장 선호하는 활동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예술·체육활동 3.997, 진로탐색활동 3.842, 주제선택 활동 3.68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거주지별 인식차이를 비교하였으나,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었고, 동아리활동에서 학년별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였으며, 1학년이 동아리활동을 높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탐색활동에서는 거주지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는데, 영남권 및 수도권이 각각 3.899, 3.885로 진로탐색활동을 선호하고, 선호하고 호남권은 3.474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자유학기제 활동 유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표 8> 선호하는 자유학기제 활동 유형

항목	M	Std	성별				학년				거주지			
			구분	M	t	p	구분	M	t	p	구분	M	Chi	p
			진로탐색활동	3.842	0.980	남	3.773	2.619	0.623	1학년	3.959	3.544	0.471	수도
여	3.899	2학년	3.803	중부	3.652									
											영남	3.899		
											호남	3.474		

주제선택활동	3.683	0.947	남	3.768	6.850	0.144	1학년	3.847	5.586	0.232	수도	3.721	8.674	0.731
			여	3.613			2학년	3.630			중부	3.522		
예술·체육활동	3.997	0.946	남	4.072	5.723	0.221	1학년	4.122	7.162	0.128	영남	3.719	10.961	0.532
			여	3.935			2학년	3.957			호남	3.421		
동아리활동	4.116	0.899	남	4.155	8.356	0.079	1학년	4.224	12.376	0.015	수도	4.127	18.923	0.090
			여	4.083			2학년	4.080			중부	4.087		
M	3.910	0.943									영남	4.180		
											호남	3.737		

자유학기제 경험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활동 유형 선호차이를 비교하였으나,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경험에 따라 선호하는 자유학기제 활동 유형

항목	자유학기제 경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구분	M	t	p	구분	M	t	p
진로탐색활동	유	3.801	3.665	0.453	유	3.880	4.140	0.387
	무	3.978			무	3.814		
주제선택활동	유	3.674	2.909	0.573	유	3.707	4.903	0.297
	무	3.714			무	3.667		
예술·체육활동	유	3.977	4.948	0.293	유	3.964	4.748	0.314
	무	4.066			무	4.022		
동아리 활동	유	4.101	7.219	0.125	유	4.084	6.403	0.171
	무	4.165			무	4.139		

마. 자유학기제 도입 시 고려사항

자유학기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진로 직업체험을 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함이 평균 4.0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함 4.058,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입제도를 개선해야 함 3.942,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함 3.9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거주지별 인식차이를 비교한 결과, 많은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인식비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함과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인본주의 교육철학을 강조해야 함, 전통교과와 비전통교과의 통합 운영에 있어 전통교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등 많은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학년에 따른 인식비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함과 체험 유형의 통합을 통해 협업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성해야 함, 교육체제 통합을 위해 자유학기제 교육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거주지에 따른 인식비교에서는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해야 함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함,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함 등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표 10> 자유학기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항목	M	Std	성별				학년				거주지			
			구분	M	t	p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해야 함	3.312	1.253	남	3.481	6.226	0.183	1학년	3.541	7.778	0.100	수도	3.332	46.398	0.000
			여	3.171			2학년	3.237			중부	3.217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함	3.930	1.019	남	4.055	11.208	0.024	1학년	4.194	14.831	0.005	영남	3.562	43.467	0.000
			여	3.825			2학년	3.843			호남	2.105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함	4.058	0.944	남	4.116	3.533	0.473	1학년	4.184	3.443	0.487	수도	3.939	61.494	0.000
			여	4.009			2학년	4.017			중부	3.891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인본주의 교육철학을 강조해야 함	3.492	0.978	남	3.624	11.987	0.017	1학년	3.571	4.022	0.403	영남	4.124	18.396	0.104
			여	3.382			2학년	3.467			호남	3.000		
전통교과와 비전통교과의 통합 운영에 있어 전통교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3.535	0.935	남	3.669	11.299	0.023	1학년	3.592	5.646	0.227	수도	4.078	64.501	0.000
			여	3.424			2학년	3.517			중부	4.196		
전담인력의 구성과 함께 전담인력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3.771	0.884	남	3.917	13.839	0.008	1학년	3.806	3.010	0.556	영남	4.202	25.837	0.011
			여	3.650			2학년	3.760			호남	2.789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관계자, 일반교사의 역할과 참여 기회를 제고해야 함	3.847	0.919	남	3.961	7.060	0.133	1학년	3.969	3.515	0.476	수도	3.508	34.334	0.001
			여	3.751			2학년	3.807			중부	3.391		
체험 유형의 통합을 통해 협업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성해야 함	3.894	0.980	남	3.967	2.859	0.582	1학년	4.194	13.396	0.009	영남	3.438	91.364	0.000
			여	3.834			2학년	3.797			호남	3.789		
진로 직업체험을 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함	4.070	0.950	남	4.138	4.986	0.289	1학년	4.245	9.314	0.054	수도	3.632	11.380	0.497
			여	4.014			2학년	4.013			중부	3.978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입제도를 개선해야 함	3.942	1.183	남	4.144	11.776	0.019	1학년	4.061	6.820	0.146	영남	4.087	110.434	0.000
			여	3.774			2학년	3.903			호남	2.316		
자유학기제 참여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장치를 마련해야 함	3.897	0.940	남	4.077	17.003	0.002	1학년	4.031	4.003	0.406	수도	3.848	5.900	0.921
			여	3.747			2학년	3.853			중부	3.935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3.859	0.915	남	3.972	7.152	0.128	1학년	3.959	5.343	0.254	영남	4.011	13.048	0.366
			여	3.765			2학년	3.827			호남	4.158		
교육체제 통합을 위해 자유학기제 교육활동에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음	3.786	0.959	남	3.901	7.269	0.122	1학년	4.031	9.898	0.042	수도	3.803	60.647	0.000
			여	3.691			2학년	3.707			중부	3.870		
M	3.799	0.989												

자유학기제 경험과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중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활동 유형 선호차이를 비교하였으며 비교적 많은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중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에 따라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입제도를 개선해야 함, 체험 유형의 통합을 통해 협업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성해야 함,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등을 포함하여 총 8개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표 11〉 경험에 따른 자유학기제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항목	자유학기제 경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구분	M	t	p	구분	M	t	p
국영수 주지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해야 함	유	3.257	6.104	0.192	유	3.287	5.390	0.250
	무	3.495			무	3.329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함	유	3.873	7.136	0.129	유	3.910	9.587	0.048
	무	4.121			무	3.944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함	유	4.052	1.822	0.768	유	4.048	2.678	0.613
	무	4.077			무	4.065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인본주의 교육철학을 강조해야 함	유	3.472	2.310	0.679	유	3.563	5.134	0.274
	무	3.560			무	3.442		
전통교과와 비전통교과의 통합 운영에 있어 전통교과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유	3.557	6.135	0.189	유	3.683	12.881	0.012
	무	3.462			무	3.429		
전담인력의 구성과 함께 전담인력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	유	3.795	3.344	0.502	유	3.862	7.876	0.096
	무	3.692			무	3.706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관계자, 일반교사의 역할과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함	유	3.837	5.038	0.283	유	3.958	13.024	0.011
	무	3.879			무	3.766		
체험 유형의 통합을 통해 협업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구성해야 함	유	3.834	6.767	0.149	유	3.862	15.046	0.005
	무	4.099			무	3.918		
진로 직업체험을 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함	유	4.046	4.812	0.307	유	4.096	3.470	0.482
	무	4.154			무	4.052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입제도를 개선해야 함	유	3.964	8.288	0.082	유	3.850	25.762	0.000
	무	3.868			무	4.009		
자유학기제 참여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장치를 마련해야 함	유	3.899	4.132	0.388	유	3.928	11.875	0.018
	무	3.890			무	3.874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유	3.876	4.078	0.396	유	3.952	14.268	0.006
	무	3.802			무	3.792		
교육체계 통합을 위해 자유학기제 교육활동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유	3.739	4.132	0.388	유	3.725	12.362	0.015
	무	3.945			무	3.831		

2.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참여 경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77.14%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과 거주지에 따른 인식비교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먼저 학년에 따른 인식비교에서 2학년 95.7%, 1학년 20.4%로 2학년이 참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인식비교에서는 호남 100.0%, 영남 92.1%, 수도 71.3% 순으로 참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참여 경험

항목	N	%	성별				학년					거주지					
			구분	N	%	t	p	구분	N	%	t	p	구분	N	%	Chi	p
예	307	77.14	남	133	73.5	2.515	0.113	1학년	20	20.4	237.226	0.000	수도	174	71.3	23.173	0.000
				174	80.2				287	95.7				중부	32		
			여	48	26.5			78	79.6	영남			82	92.1			
				43	19.8			13	4.3	호남			19	100.0			
아니오	91	22.86	남	48	26.5	237.226	0.000	1학년	78	79.6	23.173	0.000	수도	70	28.7	23.173	0.000
				43	19.8				13	4.3				중부	14		
합계	398	100.00	남	133	73.5	2.515	0.113	1학년	20	20.4	237.226	0.000	수도	174	71.3	23.173	0.000
				174	80.2				287	95.7				중부	32		
			여	48	26.5	2.515	0.113	2학년	287	95.7	237.226	0.000	영남	82	92.1	23.173	0.000
				43	19.8				13	4.3				호남	19		

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하여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만족도는 3.82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성별 간 인식차이 비교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한 인식차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별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지만 1학년이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거주지에 따른 만족도는 유의한 인식차이는 없지만 호남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유무에서는 유의한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유학기제 경험자가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현재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3〉 자유학기제 만족도

항목	M	Std	성별				학년				거주지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구분	M	t	p	구분	M	t	p	구분	M	Chi	p	구분	M	t	p
자유학기제 만족도	3.828	1.074	남	4.082	17.467	0.002	1학년	3.952	9.083	0.059	주도	3.828	6.316	0.899	유	3.902	2.167	0.705
			여	3.632			2학년	3.819			중남	3.688			무	3.745		
											영남	3.843						
											호남	4.000						

다. 중점적으로 운영된 자유학기제 유형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경우 어떤 자유학기제 유형이 중점적으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로탐색활동이 가장 활발히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고,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주제선택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표 14〉 중점적으로 운영된 자유학기제 활동

항목	N	%
진로탐색활동	188	34.50
주제선택활동	83	15.23
예술·체육활동	148	27.16
동아리활동	126	23.12
합계	545	100.00

라.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진행된 수업방식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체험중심 수업이 가장 높았으며, 강의식 수업, 토론식 수업 순으로 나타났다.

〈표 15〉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진행된 수업방식

항목	N	%
강의식 수업	84	27.36
토론식 수업	71	23.13
체험중심 수업	109	35.50
프로젝트 수업	26	8.47
협동학습	15	4.89
기타	2	0.65
합계	307	100.00

마.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가 평균 4.008로 가장 높은 동의정도를 보였으며, 자유학기제를 통한 토론, 협력, 실험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수업은 참여형·활동형 학습에 도움이 된다 3.867,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827, 자유학기제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의 계기가 된다 3.77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식차이를 비교한 결과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성인사회와 직업생활의 경험을 얻어 진로직업역량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와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은 학업에 흥미를 갖게 된다 등 3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인식차이 비교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1학년이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학년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도 할 수 있다. 거주지에 따른 인식차이 비교에서는 11개의 항목 중 8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를 나타냈으며, 대체적으로 영남권에서 기대효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호남권이 가장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

항목	M	Std	성별				학년				거주지			
			구분	M	t	p	구분	M	t	p	구분	M	Chi	p
자유학기제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의 계기가 된다.	3.774	0.991	남	3.901	8.299	0.081	1학년	4.184	31.292	0.000	수도	3.762	22.373	0.034
			여	3.668			2학년	3.640			중부	3.783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과 수업시간에도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749	0.979	남	3.901	8.367	0.079	1학년	4.133	21.528	0.000	영남	3.921	50.068	0.000
			여	3.622			2학년	3.623			수도	3.775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성인사회와 직업생활의 경험을 얻어 진로직업역량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	3.696	1.009	남	3.851	13.282	0.010	1학년	4.153	27.941	0.000	영남	3.804	23.783	0.022
			여	3.567			2학년	3.547			중부	3.761		
자유학기제를 통한 토론, 협력, 실험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수업은 참여형·활동형 학습에 도움이 된다.	3.867	0.931	남	4.000	8.335	0.080	1학년	4.224	23.861	0.000	호남	3.798	14.573	0.266
			여	3.756			2학년	3.750			수도	3.840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은 학업에 흥미를 갖게 된다.	3.641	1.148	남	3.829	11.690	0.020	1학년	4.143	28.603	0.000	중부	3.717	32.652	0.001
			여	3.484			2학년	3.477			영남	3.764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3.827	1.049	남	3.939	5.194	0.268	1학년	4.214	18.608	0.001	호남	2.737	22.384	0.033
			여	3.733			2학년	3.700			수도	3.840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4.008	0.969	남	4.105	5.222	0.265	1학년	4.388	22.145	0.000	중부	3.674	13.633	0.325
			여	3.926			2학년	3.883			영남	4.101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다.	3.616	1.079	남	3.768	7.520	0.111	1학년	4.041	21.810	0.000	호남	3.632	40.465	0.000
			여	3.488			2학년	3.477			수도	3.676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미래 지향적 핵심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3.721	0.991	남	3.834	9.440	0.051	1학년	4.082	18.530	0.001	수도	3.721	17.567	0.129
			여	3.627			2학년	3.603			중부	3.565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 형성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3.565	1.050	남	3.740	12.484	0.014	1학년	3.980	21.153	0.000	영남	3.899	24.865	0.015
			여	3.419			2학년	3.430			호남	3.263		
자유학기제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3.721	1.043	남	3.867	8.911	0.063	1학년	4.173	28.419	0.000	수도	3.705	32.191	0.001
			여	3.599			2학년	3.573			중부	3.565		
M	3.744	1.022									영남	3.989		
											호남	3.053		

자유학기제의 경험에 따른 기대효과 평가에서는 11개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 가장 크게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자유학기제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의 계기가 된다고 경험이 있는 학생 평균이 3.651, 경험이 없는 학생 4.187로 나타나 경험이 없는 학생의 동의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경험에 따른 자유학기제 도입과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

항목	자유학기제 경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구분	M	t	p	구분	M	t	p
자유학기제는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탐색의 계기가 된다.	유	3.651	27.889	0.000	유	3.754	1.747	0.782
	무	4.187			무	3.788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과 수업시간에도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유	3.645	15.755	0.003	유	3.713	4.777	0.311
	무	4.099			무	3.775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성인사회와 직업생활의 경험을 얻어 진로직업역량의 성숙에 기여할 수 있다.	유	3.583	17.899	0.001	유	3.731	5.983	0.200
	무	4.077			무	3.671		
자유학기제를 통한 토론, 협력, 실험실습, 프로젝트 중심의 교과수업은 참여형·활동형 학습에 도움이 된다.	유	3.792	13.755	0.008	유	3.916	2.939	0.568
	무	4.121			무	3.831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은 학업에 흥미를 갖게 된다.	유	3.515	19.727	0.001	유	3.575	1.922	0.750
	무	4.066			무	3.688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탐색과 고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유	3.736	15.285	0.004	유	3.772	2.482	0.648
	무	4.132			무	3.866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유	3.192	15.047	0.005	유	4.012	5.423	0.247
	무	4.330			무	4.004		
자유학기제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기를 수 있다.	유	3.521	17.599	0.001	유	3.623	3.760	0.439
	무	3.934			무	3.61		
자유학기제는 학생의 미래지향적 핵심 역량(창의성, 인성, 사회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	유	3.635	14.160	0.007	유	3.689	0.558	0.968
	무	4.011			무	3.745		
자유학기제를 통한 학교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 형성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유	3.479	13.604	0.009	유	3.581	2.055	0.726
	무	3.857			무	3.554		
자유학기제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전반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유	3.622	15.016	0.005	유	3.719	4.834	0.305
	무	4.055			무	3.723		

3. 도서관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가. 도서관 관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경험

도서관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을 제

공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제공받은 경험이 더 많았지만 유의한 인식차이는 아니며, 학년별 비교에서는 유의하게 2학년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차이 비교에서는 거주지별로 유의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호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8〉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중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여부

항목	N	%	성별				학년				거주지				자유학기제 경험							
			구분	N	%	t	p	구분	N	%	t	p	구분	N	%	Chi	p	구분	N	%	t	p
예	167	41.96	남	77	42.5	0.046	0.830	1학년	19	19.4	27.200	0.000	수도권	80	32.8	40.544	0.000	유	162	52.8	64.414	0.000
			여	90	41.5			2학년	148	49.3			충무	17	37.0			무	5	5.5		
아니오	231	58.04	남	104	57.5			1학년	79	80.6			영남	52	58.4			유	145	47.2		
			여	127	58.5			2학년	152	50.7			호남	18	94.7			무	86	94.5		
합계	398	100.00																				

나. 참여하고 싶은 도서관 관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도서관 관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한 결과, 나를 보는 창, 직업을 보는 눈!이 평균 3.849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읽GO! 생각하GO! 꿈꾸GO! 3.721, 찾아가는 진로특강 3.686, 직업전문인 특강 3.633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식비교에서는 독서전문가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유의한 인식차이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인식비교에서는 독서전문가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과 사서직 실무 체험 프로그램 등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고, 두 항목 모두에서 영남권이 높게 나타났으며 호남권이 낮게 나타났다.

〈표 19〉 참여하고 싶은 도서관 관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항목	M	Std	성별				학년				거주지					
			구분	M	t	p	구분	M	t	p	구분	M	Chi	p		
사서 직업 체험	서전문가와 함께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3.472	1.110	남	3.519	11.303	0.023	1학년	3.643	6.447	0.168	수도권	3.430	28.017	0.006	
				여	3.433			2학년	3.417			충무	3.500			
	사서직 실무 체험 프로그램	3.530	1.092		남	3.530	9.465	0.050	1학년	3.684	6.194	0.185	영남	3.685	22.394	0.033
					여	3.530			2학년	3.480			호남	2.947		
	사서 이해 프로그램	3.482	1.078		남	3.475	8.026	0.091	1학년	3.551	2.313	0.678	수도권	3.471	17.492	0.132
					여	3.488			2학년	3.460			충무	3.587		
책 읽어주세요	3.573	1.142		남	3.503	3.184	0.528	1학년	3.633	2.802	0.592	수도권	3.582	15.718	0.205	
				여	3.631			2학년	3.553			충무	3.370			
평균	3.514	1.106		남	3.503			1학년	3.633			영남	3.652			
				여	3.631			2학년	3.553			호남	3.579			
직업 체험	직업전문인 특강	3.633	1.105	남	3.580	4.213	0.378	1학년	3.714	2.042	0.728	수도권	3.643	15.016	0.241	
				여	3.677			2학년	3.607			충무	3.478			
	읽GO! 생각하GO! 꿈꾸GO!	3.721	1.088		남	3.680	6.726	0.151	1학년	3.806	.961	0.916	수도권	3.721	8.905	0.711
					여	3.756			2학년	3.693			충무	3.696		

	찾아가는 진로특강	3.686	1.092	남	3.635	6.894	0.142	1학년	3.714	1.333	0.856	수도	3.656	12.456	0.410			
				여	3.728			2학년	3.677			중부	3.587					
	나를 보는 장, 직업 보는 눈!	3.849	1.108	남	3.790	3.689	0.450	1학년	3.908	7.357	0.118	수도	3.865			9.786	0.635	
				여	3.899			2학년	3.830			중부	3.696					
	평균		3.722	1.098	여	3.899							영남			3.921		
													호남			3.421		
												수도	3.586					
												중부	3.304					
진로 탐색	사람도서관 (Human Library)	3.570	1.135	남	3.519	6.000	0.199	1학년	3.735	4.272	0.370	수도	3.586	16.857	0.155			
				여	3.613			2학년	3.517			영남	3.629					
	길을 열어주는 책 읽	3.457	1.114	남	3.436	4.884	0.299	1학년	3.541	2.152	0.708	수도	3.402	14.499	0.270			
				여	3.475			2학년	3.430			중부	3.587					
	회와 동화 속 그림 노닐다	3.523	1.148	남	3.414	6.593	0.159	1학년	3.561	1.666	0.797	수도	3.471	16.021	0.190			
				여	3.613			2학년	3.510			중부	3.565					
	유학기제 여행플래	3.598	1.131	남	3.575	1.733	0.785	1학년	3.622	1.381	0.848	수도	3.529	10.378	0.583			
				여	3.618			2학년	3.590			중부	3.717					
	평균		3.537	1.132	여	3.618							영남	3.753				
													호남	3.474				
													수도	3.418				
													중부	3.522				
인문학 체험	지역역사 알아보기	3.470	1.082	남	3.508	6.988	0.136	1학년	3.520	3.272	0.513	수도	3.522	9.943	0.621			
				여	3.438			2학년	3.453			영남	3.528					
	역 문학가와 떠나보 문학기행	3.455	1.125	남	3.492	8.066	0.089	1학년	3.520	1.049	0.902	수도	3.398	11.673	0.472			
				여	3.424			2학년	3.433			중부	3.630					
	문학에서 알아보는 시대상	3.425	1.094	남	3.381	6.953	0.138	1학년	3.347	4.122	0.390	수도	3.385	12.523	0.405			
				여	3.461			2학년	3.450			중부	3.435					
	예술작품 감상법 배워보기	3.415	1.096	남	3.403	2.423	0.658	1학년	3.531	2.261	0.688	수도	3.365	13.594	0.327			
				여	3.424			2학년	3.377			중부	3.652					
	책 속 멘토 찾기	3.432	1.122	남	3.436	3.999	0.406	1학년	3.418	2.446	0.654	수도	3.377	9.985	0.617			
				여	3.429			2학년	3.437			중부	3.543					
	책 속 멘티 찾기	3.452	1.091	남	3.448	7.581	0.108	1학년	3.449	2.317	0.678	수도	3.389	10.313	0.589			
				여	3.456			2학년	3.453			중부	3.543					
서관 장래희망 메뉴 만들기	3.585	1.152	남	3.591	7.792	0.099	1학년	3.622	.643	0.958	수도	3.549	6.756	0.873				
			여	3.581			2학년	3.573			중부	3.478						
M		3.462	1.109									영남	3.764					
												호남	3.474					

경험에 따라 참여하고 싶은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총 14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크게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난 직업전문인 특강의 경우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이 3.838, 경험이 없는 학생이 3.485로 나타나, 경험이 있는 학생이 더 높은 동의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경험에 따라 참여하고 싶은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항목	자유학기제 경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구분	M	t	p	구분	M	t	p	
사서 직업 체험	독서전문가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유	3.417	6.413	0.170	유	3.587	10.642	0.031
		무	3.659			무	3.39		
	사서직 실무 체험 프로그램	유	3.472	5.197	0.268	유	3.665	6.241	0.182
		무	3.725			무	3.433		
사서 이해 프로그램	유	3.440	2.855	0.582	유	3.623	6.053	0.195	
	무	3.626			무	3.381			
책 읽어주세요	유	3.564	2.167	0.705	유	3.743	6.998	0.136	
	무	3.604			무	3.45			
직업 체험	직업전문인 특강	유	3.622	2.544	0.637	유	3.838	21.847	0.000
		무	3.670			무	3.485		
	읽GO! 생각하GO! 꿈꾸GO!	유	3.700	0.889	0.926	유	3.862	6.315	0.177
		무	3.791			무	3.619		
찾아가는 진로특강	유	3.664	0.711	0.950	유	3.844	13.532	0.009	
	무	3.758			무	3.571			
나를 보는 창, 직업을 보는 눈!	유	3.811	6.917	0.140	유	4.03	13.551	0.009	
	무	3.978			무	3.719			
진로 탐색	사람도서관 (Human Library)	유	3.547	1.281	0.865	유	3.802	12.319	0.015
		무	3.648			무	3.403		
	꿈길을 열어주는 책읽기	유	3.417	2.958	0.565	유	3.563	5.086	0.279
		무	3.593			무	3.381		
명화와 동화 속 그림과 노닐다	유	3.498	1.100	0.894	유	3.695	10.044	0.040	
	무	3.604			무	3.398			
자유학기제 여행플래너	유	3.564	2.739	0.602	유	3.749	11.049	0.026	
	무	3.714			무	3.489			
인문학 체험	지역역사 알아보기	유	3.479	1.198	0.878	유	3.725	18.762	0.001
		무	3.440			무	3.286		
	지역 문학과와 떠나보는 문학기행	유	3.446	0.638	0.959	유	3.647	17.954	0.001
		무	3.484			무	3.316		
문학에서 알아보는 시대상	유	3.463	2.308	0.679	유	3.641	14.223	0.007	
	무	3.297			무	3.268			
예술작품 감상법 배워보기	유	3.378	3.360	0.500	유	3.575	11.284	0.024	
	무	3.538			무	3.299			
책 속 멘토 찾기	유	3.446	4.752	0.314	유	3.623	13.746	0.008	
	무	3.385			무	3.294			
책 속 멘티 찾기	유	3.463	3.564	0.468	유	3.641	13.778	0.008	
	무	3.418			무	3.316			
도서관 장래희망 매뉴얼 만들기	유	3.586	1.166	0.884	유	3.766	9.530	0.049	
	무	3.582			무	3.455			

다. 정보활용영역에서 참여하고 싶은 활동

정보활용영역의 활동들은 실제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례들을 조사하고, 연구진들의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중학생이 관심이 있어 할만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기타 영역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활용영역에서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분석한 결과, 아이패드 사용하기가 평균 3.965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D프린트 활용하기 3.937, 드론 활용하기 3.847, SNS 활용하기 3.741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거주지별 인식비교에서는 유의한 인식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었으나 성별에 따른 인식비교에서는 컴퓨터활용교육, 정보활용교육, 구글클래스 활용하기, 정보검색교육, 콘텐츠제작, 드론 활용하기, 인터넷활용교육, 아이패드 사용하기 등 8개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를 나타냈다.

〈표 21〉 참여하고 싶은 정보활용영역 활동

항목	M	Std	성별				학년				거주지								
			구분	M	t	p	구분	M	t	p	구분	M	Chi	p					
정보활용교육	3.425	1.103	남	3.580	18.103	0.001	1학년	3.510	3.815	0.432	수도	3.393	11.101	0.520					
				3.295				2학년			3.397	중부			3.457				
			여	3.901			1학년	3.837			영남	3.517							
											2학년	3.597			호남	3.316			
남	28.889	0.000	1학년		3.837	수도	3.611		16.281	0.179									
						2학년	3.597				중부	3.587							
여			3.735	18.205		0.001	1학년	3.735			영남	3.787	17.918	0.118					
											2학년	3.533			호남	3.789			
남	3.583	1.098			1학년		3.735		수도	3.578	14.692	0.259							
									2학년	3.597					중부	3.500			
여			3.656	1.095	1학년	3.837		영남	3.674	20.499			0.058						
								2학년	3.597					호남	3.421				
남	3.595	1.129			1학년		3.837	수도	3.660		12.637	0.396							
								2학년	3.597					중부	3.500				
여			3.741	1.109	1학년	3.796		영남	3.708	18.669			0.097						
								2학년	3.723					호남	3.737				
남	3.741	1.109			1학년		3.796	수도	3.762		19.319	0.081							
								2학년	3.723					중부	3.457				
여			3.595	1.129	1학년	3.612		영남	3.843	16.605			0.165						
								2학년	3.590					호남	3.684				
남	3.965	1.074			1학년		4.031	수도	3.623		12.529	0.404							
								2학년	3.943					중부	3.457				
여			3.606	1.154	1학년	3.633		영남	3.629	14.154			0.291						
								2학년	3.597					호남	3.421				
남	3.606	1.154			1학년		3.633	수도	3.914		19.319	0.081							
								2학년	3.597					중부	3.804				
여			3.595	1.129	1학년	4.031		영남	4.213	16.605			0.165						
								2학년	3.590					호남	3.842				
남	3.937	1.150			1학년		4.031	수도	3.607		12.529	0.404							
								2학년	3.907					중부	3.543				
여			3.661	1.185	1학년	3.745		영남	3.708	14.154			0.291						
								2학년	3.633					호남	3.263				
남	3.661	1.185			1학년		3.745	수도	3.906		16.605	0.165							
								2학년	3.633					중부	4.000				
여			3.606	1.154	1학년	4.010		영남	4.090	12.529			0.404						
								2학년	3.793					호남	3.474				
남	3.847	1.162			1학년		4.010	수도	3.832		14.154	0.291							
								2학년	3.793					중부	3.761				
여			3.661	1.185	1학년	3.745		영남	3.966	19.319			0.081						
								2학년	3.633					호남	3.684				
남	3.661	1.185			1학년		3.745	수도	3.660		16.605	0.165							
								2학년	3.633					중부	3.543				
여			3.606	1.154	1학년	3.633		영남	3.798	12.529			0.404						
								2학년	3.633					호남	3.316				
M	3.698	1.122			여		3.502	18.339	0.001		2학년	3.633		3.140	0.535	수도	3.660	14.154	0.291
																중부	3.543		
											영남	3.798							
											호남	3.316							

자유학기제 운영 프로그램 중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에 따른 인식차이 비교에서는 인터넷활용교육과 컴퓨터활용교육 등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표 22〉 경험에 따른 참여하고 싶은 정보활용영역 활동

항목	자유학기제 경험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경험			
	구분	M	t	p	구분	M	t	p
정보활용교육	유	3.407	3.766	0.439	유	3.539	6.571	0.160
	무	3.484			무	3.342		
컴퓨터활용교육	유	3.629	2.218	0.696	유	3.814	10.555	0.032
	무	3.747			무	3.541		
정보검색교육	유	3.547	2.413	0.660	유	3.725	6.306	0.177
	무	3.703			무	3.481		
인터넷활용교육	유	3.619	3.694	0.449	유	3.784	11.151	0.025
	무	3.780			무	3.563		
SNS 활용하기	유	3.739	1.769	0.778	유	3.832	3.999	0.406
	무	3.747			무	3.675		

콘텐츠제작	유	3.586	0.168	0.997	유	3.617	3.835	0.429
	무	3.626			무	3.58		
아이패드 사용하기	유	3.954	1.321	0.858	유	4.072	4.673	0.323
	무	4.000			무	3.887		
전자책 만들기	유	3.593	0.612	0.962	유	3.725	4.750	0.314
	무	3.648			무	3.519		
3D프린트 활용하기	유	3.912	2.718	0.606	유	4.102	6.295	0.178
	무	4.022			무	3.818		
드론 활용하기	유	3.821	1.016	0.907	유	4.000	6.160	0.187
	무	3.934			무	3.736		
구글클래스 활용하기	유	3.664	1.828	0.767	유	3.832	9.272	0.055
	무	3.648			무	3.537		

V.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수혜대상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자유학기제에 대한 도서관 측면에서의 자유학기제 관련 대응 방안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경우 지금까지의 강의식 수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체험중심 수업이나 프로젝트 학습, 협동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각종 동아리 활동,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 관심분야 주제탐색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발굴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진로 직업체험을 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학교 단위의 창의적 체험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하며, 자유학기제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도입제도 개선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수업시수를 확대해야 하는 등의 인프라적인 개선도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의 어떤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는 자유학기제의 시행의 필요성 및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진로탐색능력, 자기개발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인 학생 각자가 성장 후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필요한 정보와 경로를 알도록 돕는 진로활동 위주의 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려는 취지(교육부 2013)를 달성하려면 학생들의 이러한 능력은 반드시 향상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셋째, 자유학기제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았는데,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약 77%는 자유학기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진로탐색활동 및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주제선택활동 순으로 참여를 했는데, 자유학

기제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유학기제는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무기력한 학생, 교육력이 저하된 무력한 학교 등을 행복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진로탐색 활동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유학기제의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높이 선호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사결과, 응답 학생들의 42%만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중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나 사례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프로그램들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목록을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서직업프로그램, 진로탐색프로그램, 인문학체험 프로그램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 전체를 놓고 선호도를 보았을 때는 나를 보는 창, 직업을 보는 눈!이 평균 3.849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읽GO! 생각하GO! 꿈꾸GO! 3.721, 찾아가는 진로특강' 3.686, 직업전문인 특강 3.633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서관 및 사서들이 앞으로 자유학기제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서비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자유학기제란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 속에서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진로교육 강화, 교수학습방법 혁신, 학생부담 해소, 안정적인 정착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중·고등교육의 방향이 이와 같이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문헌정보학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계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수요조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련된 문헌과 사례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식을 조사하였다.

종합적으로, 중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향상시키고자 하는 능력요소는 진로탐색능력이며, 중점적으로 운영된 자유학기제 유형은 진로탐색활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자유학기제 수업방식은 주로 체험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동안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진로탐색 영역에서는 현장체험 활동을, 학생선택 프로그램에서는 요리실습을, 동아리활동에서는 스마트폰 앱 개발, 예술영역에서는 디자인 활동을, 체육영역에서는 배드민턴을, 정보활용능력에서는 아이패드 사용하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도서관 프로그램 중 직업체험인 나를 보는 창, 직업을 보는 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서관이 제공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해 도서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진, 이재창, 임재일, 홍후조. 201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특성 분석. 『교육과정연구』, 32(2): 215-241.
- 김수환. 2015. 2014 자유학기제 수학체험프로그램 운영. 『[공공저작물 연계] 한국과학창의재단 발간자료, 1-62.
- 김중운, 이태곤. 2014. 진로캠프를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339-349.
- 김진숙. 2013. 아일랜드 Transition Year 교육과정 탐구. 『교육과정연구』, 31(4): 165-193.
- 김은정. 2013. [발표] 가정교과의 진로교육과 자유학기제의 활용방안.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67-90.
- 남미숙. 2013. 자유학기제 운영모델 탐색.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53-70.
- 류정섭. 2013.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9-19.
- 성은모, 정효정. 2013.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진로교육연구』, 26(4): 49-63.
- 신철균.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은영, 손주영, 김예슬, 조재순. (2014.5).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가정교과 관련 운영 실태 분석.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157-158.

- 이지연. (2013a). [발표]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 『한국가정교육학회 학술대회』, 23-51.
- 이지연. (2013b). 「進路」중심 자유학기제 도입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 『진로교육연구』, 26(3): 1-22.
- 임지연, 김정주, 김정숙, 이선영. 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표혜영. 2013. [사례발표] 2013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정책추진학교 운영사례: 행복학교로 가는 징검다리, 자유학기제.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31-154.
- 한국교육개발원. 2013.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 서울: 동연구원, 2013-01-1.
- 한국교육개발원. 2014.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서울: 동연구원, RR2014-17.
-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3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종합 보고서』. 서울: 동연구원, CR2014-19.
- 한국고용정보원. 2008. 『초중고 직업진로지도 실태조사』. 음성: 동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자유학기제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R04.
- 현연숙. 2013. [사례발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 한국진로교육학회 학술대회지, 155-185.
- 홍후조, 임유나, 장소영. 2013. 『관련자 의견조사에 기초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 탐색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19(2): 33-68.
- 황규호. 2013.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제 1 차 자유학기제 포럼 발표자료, 1-28.
- John Taylor Gatto(2005). 김기협 역. 바보만들기. 서울: 민들레
- 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http://www.moe.go.kr/web/100012/ko/board/view.do?bbsId=316&boardSeq=47981>>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Hong, Hoo-Jo & Lim, Yoo-Na & Jang, So-Young. 2013. "An Inquiry on the Loose Semester for Career Exploratio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Survey of Stakeholders." *Korea Educational Reiview*, 19(2): 33-68.
- Hwang, Kyu-Ho. 2013. A Study on the Effective Instructional Design Plans of Curriculum for Free Learning Semest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st Free Learning Semester Forum Proceedings*, 1-28.

- Hyun, Yeon-Sook. 2013.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SCEP) of Free Learning Semester.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rer Education Proceedings*, 155-185.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Implementation Plans for Free Semester*. Research Report No. PP2013-01-1.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4. *A Study on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Free Semester in Middle Schools*. Research Report No. RR2014-17.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4. 2013 Synthesis Report on A Case Study of Free Semester Pilot Schools. Research Report No. CR2014-19.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08. Survey on Vocational Career Education in Elemantary · Midlle · High Schools.
- Kim, Eun Jeong. 2013. [Publication] The Practical Using Plans of Home Economics Education's Free Semester system and Carrer Edu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Proceedings*, 67-90.
- Kim, Jin-Sook. 2013. "A study of transition year curriculum in Ireland."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1(4): 165-193.
- Kim, Jong-Un & Lee, Tae Gon. 2014. "The Effects of Career Education Program using a Career Camp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Barri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0): 339-349.
- Kim, Mi-Jin & Lee, Jae-Chang & Lim, Jae-Ill & Hong, Hoo-Jo. 2014. "An analysis of school reports on Free Learning Semester: Focusing o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school curriculum."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2(2): 215-241.
- Kim, Su Hwan. 2015. 2014 Management of Free Semester School Excursion Programs. *Korean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1-62.
- Lee, Eun-Young & Son, Joo-Young & Kim, Yea-Seul & Cho, Jae-Soon. 2014. "Home Economics related Programs from the Pilot Schools implementing the Free Learning Semest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Proceedings*, 157-158
- Lee, Ji-Yeon. (2013a). [Publication] Developing Strategies for a Free Semest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Proceedings*, 23-51.

- Lee, Ji-Yeon. (2013b). The Validity of Carrer Oriented Inplementation of Free Learning Semester. *Journal of Carrer Education Research*, 26(3): 1-22.
- Lim, Ji-yeon et al. 2014. "Encouraging youth activities through Free Semester System : Focusing on activities of school-local community cooperation."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am, Mi-Sook. 2013. A Study of Operation Model for Free Semester.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rer Education Proceedings*, 53-70.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4. *Encouraging youth activities through Free Semester System: Focusing on activities of school-local community cooperation*. Research Report No. 14-R04
- Ryu, Jeong Sub. 2013. "What is Free Semester?."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rer Education Proceedings*, 9-19.
- Shin, Chol-Kyun. 2014. *Settlement Measures for Middle School Free-Semester Program in Korea*. Seoul: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 Sung, Eunmo & Jung, Hyojung. 2013. "Community' s Participating Strategies for Facilitating Experience-based Youth Career Education." *Journal of Carrer Education Research*, 26(4): 49-63.

